



세상사가 벅차게 느껴질 때 If the weight of the world feels overwhelming

미셸 나누슈 (Michelle Nanouche)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 (The Christian Science Monitor)

2012년 2월 9일

당신은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인해 압도된 적이 있는가? 당신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는 일들이 벅차게 느껴질 때가 있는가? 누구나 그런 경험을 한 적이 있다. 어느 날 나는 개인상 그리고 직업상의 여러 문제들로 중압감을 느끼고 있었다. 나는 해답을 찾고 있었지만 어찌 기도를 해야 할지 전혀 생각이 떠오르지 않았다. 나는 더 나은 시각(視覺)이 나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일들이 너무도 걸잡을 수 없게 되었다라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가 없었다. 그래서 집 밖으로 나가 산책을하기로 했다. 나는 걸으면서, 하나님께 여쭙어보았다, “이곳에서 하는 나의 작은 기도들이 ‘저곳’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수 있나요?” 그리고 나는 위를 올려다 보았다.

내 머리 위에는 거대한 나무 한 그루가 길 위로 기울어져 장관을 이루며 펼쳐 있었다. 그 맨 꼭대기에 있는 작은 이파리들이 나무에 안전하게 연결된 채로 각각 따로따로 미풍에 앞뒤로 빙글빙글 돌며 흔들거리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순간 나는 내 기도는 단 하나의 이파리조차 움직이게 할 의무도 바람을 통제해야 할 의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 기도가 “바람을 자기 주먹 안에 모으는” (잠언 30 장 4 절 참조) 그리고 모든 이파리들의 움직임을 다스리는 신성의 권능에 내 눈을 뜨게 하였다.

나는 깊은 안도의 한 숨을 쉬었다. 내 어깨에 놓여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을 지켜보라는 초청이 되었다. 나는 이제 그것을, 즉 문제를 해결하는 기도가 아니라 항상 곁에 있는 해법을 증언할 수 있는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느꼈다.

건강이나 조화는 하나님과 그분이 창조하신 가장 작은 세부적인 것들과의 관계, 그리고 그의 보살피심에 대한 증명 또는 증거이다. 기도는 건강이나 조화가 일어나도록 만들지는 않는다; 기도는 그것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도는 인식의 변화를 도모하여, 정작 진행되고 있는 것에 대한 영적 감각으로 우리를 열어 준다. 이것이 꼭 어려운 일은 아니다. 나의 경우처럼, 안달하기 보다는 문제를 넘어서서 기도하라는 초청을 실제로 받아들이기까지에는 노력이 필요할 수 있다. 그러나 만일 기도가 우리로 하여금 문제 중심의 세계관으로부터 벗어나 그 놀라운 창조의 모든 요소들의 움직임을 통치하고 성장을 보살피는 신성의 권능을 보도록 도와준다면 기도는 얼마나 큰 구원일 수 있는가.

For this translation in English and other translations in Korean, please see
<http://translations.christianscience.com/translations/list/lang/Korean>

Translation © 2012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This translation has been performed by Mother Church members in the Field and made available by agreement with The Christian Science Publishing Society. You may reproduce up to 100 print copies of this Article. You may not sell or reprint this Article in another publication without permission of CSPS. You may not post or embed this Article on other websites; instead please link to the Article on the CSPS website.

요한계시록의 저자는, “사탄이 그의 감옥에서 풀려나리라”고 기록한다. (20 장 7 절) 누군들 이런 경험을 해본 적이 없겠는가? 그러나 그 뒤 멀지 않아, 계시록 저자의 기도는 그를 모든 곳에 존재하는 조화와 건강에 대한 계시의 광경으로 인도한다. 그는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에서 흘러 나오는 수정처럼 맑은 생명수의 정결한 강을 보여주더라. 그 도성의 거리 한 가운데와 그 강의 양편에는 생명 나무가 있어 열두 가지 과실을 맺으며 달마다 과실을 내더라. 그리고 그 나무의 잎사귀들은 민족들을 치유하기 위한 것이더라”고 본 것을 묘사했다. (22 장, 1,2 절)

우리를 위한 **하나님** 사랑의 한결 같고 끊임 없는 흐름이 모든 공간과 시간에 미치고 채운다. 그 사랑은 바로 지금 여기에 있다. 그것은 아무도 아무 것도 제외하지 않는다. 나무의 가장 작은 이파리로부터 지상의 최강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아무도 **하나님**의 치유하는 사랑으로부터 단절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기도가 그것을 드러낸다.

후유, 얼마나 큰 안도인가!